

“전술 이해력 부족”

■ 베어백 감독, 태극전사들 단점 지적

필 베어백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선수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으로 ‘전술 이해력’을 꼽으며 결국 더 많은 훈련 시간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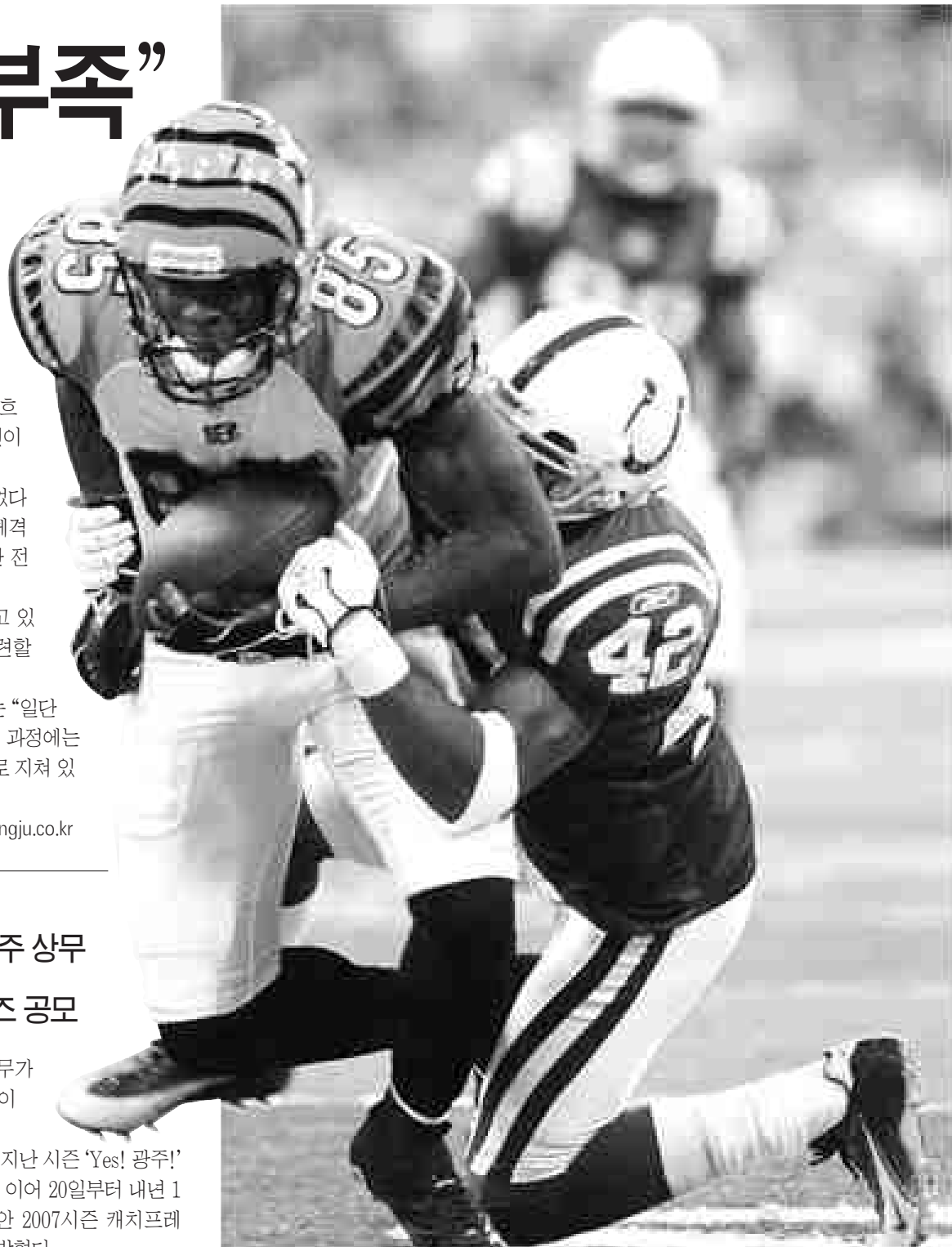
베어백 감독은 19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06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보수교육에서 ‘축구 철학과 현대 축구의 흐름’으로 제목을 강연을 한 뒤 ‘한국 선수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전술 이해 능력’이라고 답했다.

베어백 감독은 “기술이나 체력면에서는 유럽 선수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졌고, 체력 조건이 좋은 유럽 선수들과 몸싸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전술 이해 능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이 K-리그 등 소속팀에서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뛰고 있다. 다른 전술을 알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대표팀에서는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소집 기간이 짧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불만족스런 경기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지도자는 결과만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찬스를 만들어내던 과정에는 만족한다”면서 “14일 동안 6경기를 치러 선수들이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 선수들이 정확한 전술 판단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홍명보 장학재단 자선축구 25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서

현역에서 물러난 베테랑 스트라이커 황선홍(38·전남 코치)과 ‘젊은 골잡이’ 박주영(21·서울)이 자선축구 대회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화려한 골 잔치를 벌인다.

재단법인 ‘홍명보 장학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6 푸마 자선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축구스타 4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격수에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풀타임 드린 결승골의 주인공 황선홍과 오스트리아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서정원(리트)을 비롯해 이천수(울산), 김은중, 정조국, 박주영(이상 서울), 등 K-리그 스타들과 조재진(시미즈), 김동현(루빈 카잔) 등 해외파 선수 등이 포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축구 광주 상무 캐치프레이즈 공모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2007시즌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광주 상무는 19일 “지난 시즌 ‘Yes! 광주!’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이어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한달동안 2007시즌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팬과 함께 만들어 가는 승리’로, 한글·영문 구분은 없고 캐치프레이즈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발음하기 쉽고 간결한 내용이면 된다.

응모는 구단 홈페이지(www.gwangjums-fc.c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당선자에게는 유니폼과 입장권 등 소정의 기념품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일(수) ▲프로농구(모비스-오리온스)(18:50·Xports)(18:50·SBS스포츠) 21일(목) ▲칼링컵 축구(토트넘-사우스엔드 Utd)(04:50·KBSN Sports)

“나에게 전진 뿐이다”

▲신시내티 벙골스의 리시버 채드 존슨(번호 85·왼쪽)이 19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RCA 돔 구장에서 열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의 미국프로풋볼(NFL) 경기에서 상대 팀 수비수 제이슨 데이비드(번호 42)의 태클을 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도하 아시안게임 결산 ③ 여전히 부실한 기초종목

정신력 실종·전략 실패 마라톤 등 육상서 ‘최악’

금 1개로 겨우 체면치레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스 포츠의 기초 종목들이 얼마나 허약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육상과 수영을 ‘정책 지원 종목’으로 분류해 180일 동안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다른 종목과 차별을 두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하지만 육상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목표로 삼았지만 경기 일정이 끝나고 나니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내는데 그쳐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남겼다.

육상은 7일 남자 20km 경보에서 김현섭(삼성전자)이 은메달을 따내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으나 트랙과 필드 종목이 시작되자 말뚝이 드러났다.

장던지기의 박재명(태백시청)이 유일하게 금메달을 따지만 기대를 걸었던 여자 100m 허들 이연경(울산시청)과 남자 10종경기 김건우(포항시청)가 동메달 한 개씩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했던 마라톤의 침체는 더욱 심각하다.

지영준(코오롱), 김이용(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전했지만 메달권에 근접하기도 못하면서 정신력 실종, 전략 실패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국내 마라톤계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육상의 부진에는 오일달러를 앞세워

아프리카 용병들을 사들인 중동국가들의 강세도 한 몫을 했다.

박태환(경기고)이라는 아시안게임 최고의 스타를 배출한 한국수영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빈약한 선수층이 발목을 잡고 있다.

수영은 경영 부문에서 금3, 은2, 동메달 11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20여년의 오랜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온 것 처럼 보인다.

이 중 박태환이 혼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낸 것을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은 중국과 일본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대부분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수영 유망주 더 발굴해야

박태환 같은 스타가 나온 것은 한국수영의 행운이지만 제2, 제3의 박태환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명망있는 해외 수영 클럽으로 주기적으로 전지훈련을 보내거나 유망주들을 아예 미국이나 호주 등 수영 선진국으로 장기 유학을 보낼 필요성도 있다.

수영이 특정 선수에 의존했다면 ‘중점 지원 종목’인 남자체조는 세대 교체에 성공하면서 합격점을 받았다.

애초 양태환(포스코건설)과 유원철(한국체대)이 출전하는 평행봉에서 금메달 1개를 노렸던 한국 체조는 김수면과 김대은(이상 한국체대)이 각각 안마와 평행봉에서 정상에 올라 금메달 2개를 비롯해 동메달 3개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한국수험정보지원센터 13, 14회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학원

1월 2일 **1차 시험** (1월 2일) **2차 시험** (1월 28일) **3차 시험** (2월 11일)

합격비 1원! **4차 시험** 행정고시학원 **361-8111**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

1. **합격비 1원!** 2. **합격비 1원!** 3. **합격비 1원!**

010-8427-9997 (유)홍길동 자동차 매매상사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 대리기사 이야기!

060-700-3658

30만원대 히터가 무료 풀었다! 독일형 베키 벽난로형 히터!

가격, 난방비, 소음, 냄새, 고열문제까지 50만원대 히터를 능가하는 벽난로형 히터가 99,000원

060-717-5050